2021년 한국농림기상학회지 특별호:

"농림기상학의 재고: 대전환"
(Re-thinking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the Great Transition)

특별호 편집진:

강민석, 김광수, 김대준, 김준, 김현석, 남재철, 이병렬

기여논문 투고 최종 마감일: 2021년 11월 15일

배경 및 목적:

생태-사회시스템의 지속적인 악화가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심각한 위험임을 경고하고 있다. 20세기 인류세(Anthropocene)가 초래한 '대가속(The Great Acceleration)'의 결과로 우리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지구의 생태학적 한계를 넘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삶을 추구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바로 이러한 대가로 사회시스템의 기반이 함께 망가지면서 발생한 재앙의 하나일 뿐이다, 지금 우리 세대는 인류가 하나뿐인 지구에 무슨 짓을 했는지 심각하게 체험하고 깨달은 첫 세대이자, 그것에 대해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가 주어진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 '행성 경계(Planetary Boundaries)'라 명명된 이 생태학적 상한의 경우,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기후변화와 더불어 생물다양성 손실, 질소/인의 축적, 토지 개간, 담수 고갈, 전염성 질병이 이미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이 경계들은 인구 증가와 농림업,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책임 있는 식량 생산, 분배 및 소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농림기상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모든 영역에서 전 세계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농림기상학이 추구하는 과학과 기술, 교육 및 서비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DNA(Data, Network, AI)를 지향하며 떠오르는 화두의 하나가 현실과 가상 세계가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하는 공간인 '메타버스'다. 이제는 이러한 공간도 기후변화와 불평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의로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도넛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4차 유행 속에서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회복이 과연 다가올 또 다른 위기를 막고 견디어 내도록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회복인가? 팬데믹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과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최소한의 건강하고 만족스런 삶을 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다음 세대와 취약 국가와 어려운 이웃들의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킬 최소한의 역량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본 특별호의 목적은 건강한 농림생태-사회시스템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22주년 한국농림기상학회에서 공유된 바와 같이, 1)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초학문(trans-discipline)으로서의 농림기상학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2) 이를 통해 기존 사고의 틀과 이해의 범주를 넘어 학문, 교육, 연구, 서비스의 대전환을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누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논문과 더불어 총설, 서평, 기술 노트, 편집장 통신 등의 다양한 구성으로 특별호를 구성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기대한다.